투명세상 취급

(요16:8~15)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투명세상 취급>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을 투명세상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투명인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투명인간이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보므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투명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엄연히 나는 지금 그 사람의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데, 나의 존재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동할 때,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 '밥 같이 먹을래?' 말 한 마디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연예인인데, 거리에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도대체 연예인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와서 사인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지나치면서 한 번 더 돌아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 세상을 투명세상 취급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투명세상 취급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내 마음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인간세상과 인간사회,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과 이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권세, 권위, 위엄,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투명세상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KBS나 MBC, SBS 방송을 통해서 중계방송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아! 들어라, 너희가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내 마음에 세상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 되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의 권위와 권세와 위엄에 대해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의 책망이 세 가지 측면을 갖고 나타납니다.
결국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의 권세와 권위와 위엄을 투명세상 취급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일이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의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 재판의 문제, 판단 평가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성령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책망 속에 우리의 세상에 대한 승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자는 얘깁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신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세상이 죄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이 내용이 뭘까요?
복잡한 이론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삶을 사셨나,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다 '내 것을 가지고 가르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실현한 삶 속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을 책망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 죄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내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죄인'이라고 하면 창녀가 죄인입니다.
맞죠! 율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율법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회 속에서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데, 창녀가 죄인인 게 당연하지요.
그리고 세리들이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완용 같은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버리십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죄인의 기준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투명기준 취급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 의인인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과 잣대가 주님 앞에서 투명한 것으로 취급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죄인의 기준을 새롭게, 정말 주님만의 기준입니다, '나를 믿으면 죄인이 아니고 나를

안 믿으면 죄인이다’ 완전히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놓고 살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기준이 다 무시돼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총기사고가 났다고 하면, 쯧쯧 혀를 몇 번 차고 맙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급식으로 30명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전교생 900명 중 30명이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
그리고 학교에 전화를 걸고 난리가 납니다.
총기사고로 열 몇 명이 죽어도 쯧쯧 하면 끝날 일인데, 내 아이가 걸린 것도 아니고 내 아이가 속한 학교에서 30명이 식중독에 걸렸다는데 난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미국 고등학교에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실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얼마나 들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우선적으로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 현실이 정해지는 겁니다, 우선적인 현실과 나중 현실, 더 나중 현실이 무엇이냐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승천해 계시는 그 천국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되는 것을 예수님 믿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업이 안돼서 걱정스럽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주님이 가계신 천국보다 앞선 현실이 돼있는 상태라서, 그 사업이 안 되는 현실에 마음이 빠져서 마음이 우울하다면 안 믿는 것이고 그게 죄인이라 이겁니다.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 삯으로 멸망을 받아야 할 죄가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이 가계신 천국과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내 첫 번째 현실이 아닌 것이 멸망을 당할 죄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횡령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모든 사회적인 규범과 법과 율법을 다 지켰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의 삯을 받는 죄인이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정한 적이 없어요.
즉, 세상이 정한 죄의 기준, 세상이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권세와 권위, 모든 것을 다 투명한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마신다는 겁니다.

지금 천국이 마음의 첫 번째 현실로서, 마음이 주님이 가계신 천국에 가있지 않으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창녀 짓 하다가 나라를 팔아먹다가, 지금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아베 수상이나 일본 외무상이 주님을 믿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완용이 주님을 믿게 되면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님이 김좌진 장군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아서 천국이 현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라는 얘깁니다.
세상이 죄에 대해서 정한 기준과 권위와 권세를 완전히 투명한 것으로 취급해버리십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義)가 뭡니까?
인격적으로 말해서 의라는 것은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하면 기준에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는 이 세상에도 넘쳐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들 해요, '아니, 너 꼴이 그래가지고 결혼이라도 하겠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네가 여잔데, 도대체 그렇게 하고 다녀가지고 어느 남자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하겠느냐?'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에게든지 의롭다 함을 받아야 결혼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여자에게든지 의롭다 함을 받아야, '당신 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돼야 결혼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이라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 대학이 제공하는 기준에 맞았다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취직이 뭡니까? 그 회사가 제시하는 신입사원의 기준에 맞았다 이겁니다, 즉 합격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합격자가.

그러고 보면 온 세상은 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입니다.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래하고 춤추며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너 괜찮다'라고 국민들이 말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높은 것 같지만 국민들이 '너 내 마음에 들어!'라고 인정해준 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세상이 정한 의, 세상이 말하는 의를 투명한 것으로 취급해버리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내 마음에 듭니다, 내 마음에 듭니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세상의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목사님들도 다 기뻐 뛰며 춤을 출 일이에요.
그런데 다해서 2만 명이 될 지도 모르는 군중이 마음에 든다고 난리법석 할 때, 그 군중을 완전히 투명군중 취급을 해버리십니다.
또 반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 대제사장들,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 유력자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So what?' '너희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해서 뭐 어쨌다는 거냐? 너희가 나를 마음에 든다고 한들 어찌 하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십니다.
'이 세상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게 무슨 상관이며, 세상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 한분의 마음에 드는 것만을 위해서 사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므로 의에 대해 책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지구를 다 뒤져봐도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평생을 소모하며 산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를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도 교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인들이 나를 좋아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목회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훌륭해, 우리 목사님 훌륭해!' '우리 하나님 훌륭해, 우리 예수님 훌륭해!'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대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게 무슨 교인입니까? 목사교지.
다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대, 목사님이 좀 모자라면 어때요?
이 건희 씨 인격을 보고 그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 삽니까?
목사님이 좀 모자랄 수도 있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나님말씀은 듣고, 그 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좋구나, 하나님이 좋구나!' 이래야 되는데, 마이크가 좋대요, 마이크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교인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무얼 깨닫게 되느냐?
목사님의 경우에, '아, 설교 잘 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에 '그래서?', 또 장로님이 '아, 설교가 그게 뭡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가, 이것만을 신경 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에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임금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세상 임금이라는 것이 사탄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앞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이후로는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나와 관계가 없다' 헤롯 대왕과 빌라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재판 받으실 때 주님께서 빌라도와 헤롯을 투명인간 취급해버리십니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내 앞에서 자기변호를 안 하느냐?' 이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가 내 아버지가 주셔서 받은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임금이 오겠지만 그는 나와 상관할 게 없다'
이 세상의 평가, 재판, 판단,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심판하시느냐, 이것만이

문제가 되게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관심거리가 아니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관심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세 측면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의라고 하는 문제, 심판이라고 하는 문제, 죄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하나의 문제를 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문제는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신경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 3절에 '저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고 출교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거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승천해 계시는 주님만 신경 쓰게 만듭니다.
보이는 세상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보이는 세상만 신경 쓰고 살아요.
성령이 오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이 첫 번째 현실이 돼서 그곳만 신경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사회가 존재는 하지만 투명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합니까?
나를 살펴보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죄의 기준에 따라 살고 있느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업에 신경 쓰다가, 자식에게 신경 쓰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마음을 지금 다 다른 데에 빼기고 있구나! 천국이 있는데,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데 이 첫 번째 현실인 천국과 아버지와 주님께 마음을 주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 쏟고 있구나!' 깜짝 놀랍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합니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만 신경 씁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세상을 이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위엄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과 인간사회의 권세가 완전히 투명한 것으로 취급되어지는 상태,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으로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약속되어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위엄이 내 마음에서 무효화되게 하시고 투명세상이 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주님과 천국만이 유일한 나의 현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